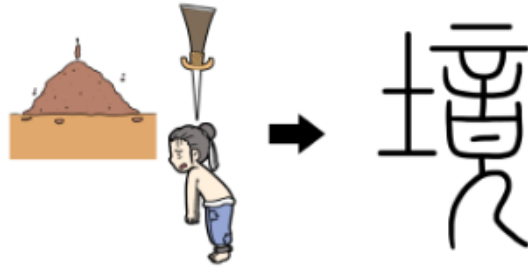


4(2)  
-  
11

회의문자①



境

지경 경

境자는 '지경'이나 '경계', '경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境자는 土(흙 토)자와 竟(다할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竟자는 일이 마무리됐다는 의미에서 '다하다'나 '끝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끝나다'라는 뜻을 가진 竟자에 土자를 결합한 境자는 '영토의 끝자락'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지금의 境자는 주로 어떠한 상황의 한계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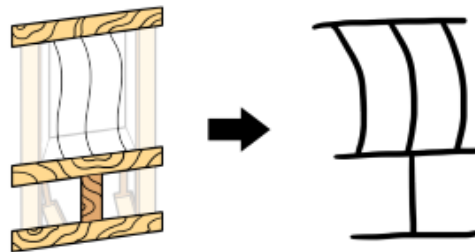
소전

境

해서

4(2)  
-  
12

회의문자①



經

지날/글  
경

經자는 '지나다'나 '다스리다', '날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經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冫(물줄기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冫자는 '물줄기'라는 뜻이 있지만, 본래는 베를 사리로 날실이 지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날실이)지나다'라는 뜻은 冫자가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冫자가 '물줄기'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系자를 더한 經자가 '지나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經자는 후에 비단 실을 엮어 베를 짜듯이 기초를 닦고 일을 해나간다는 의미에서 '다스리다'나 '경영하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冫

금문

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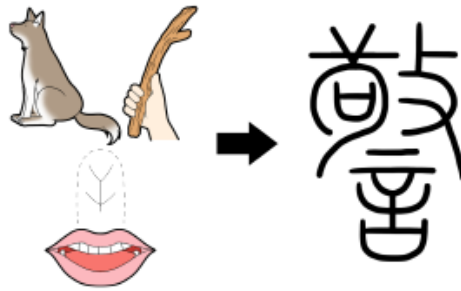
소전

經

해서

4(2)  
-  
13

회의문자①



警

깨우칠  
경:

警자는 '깨우치다'나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하다'는 주의를 환기한다는 뜻이다. 警자는 言(말씀 언)자와 敬(공경할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敬자는 귀를 쫓긋 세우고 있는 개와 몽둥이를 함께 그린 것이다.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을 그린 敬자에 言자를 결합한 警자는 말로써 주의를 환기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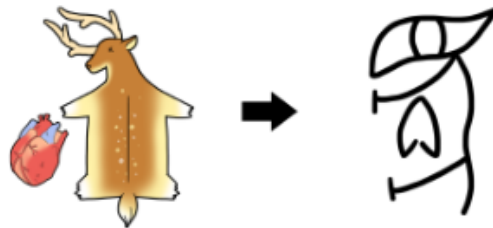
소전

警

해서

4(2)  
-  
14

회의문자①



慶

경사 경:

慶자는 '경사롭다'나 '경사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慶자는 鹿(사슴 록)자와 心(마음 심)자, 夂(을 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慶자의 갑골문을 보면 사슴을 뜻하는 鹿자에 心자만이 夂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경사(慶事)가 있는 곳에 사슴 가죽을 선물로 가져간다는 뜻이다. 아름다운 얼룩무늬가 있는 사슴 가죽은 다른 어떤 동물의 가죽보다도 귀하게 여겨졌다. 비싸고 귀한 사슴 가죽을 선물로 가져갈 정도니 분명 큰 잔치가 있는 곳일 것이다. 그래서 慶자는 사슴 가죽과 마음을 뜻하는 心자를 더해 '경사롭다'나 '축하하다'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가다'라는 뜻의 夂자가 더해지면서 '사슴(鹿)의 가죽을 가지고 가다(夂)'라는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夂

갑골문

夂

금문

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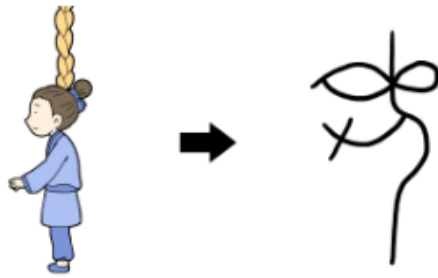
소전

慶

해서

4(2)  
-  
15

회의문자①



係

係자는 '매다'나 '잇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係자는 人(사람 인)자와 系(이을 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系자는 실타래를 손으로 엮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잇다'나 '묶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실타래를 이어 묶는 모습을 그린 系자에 人자가 더해진 係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잇다'라는 뜻이다.

맬 계: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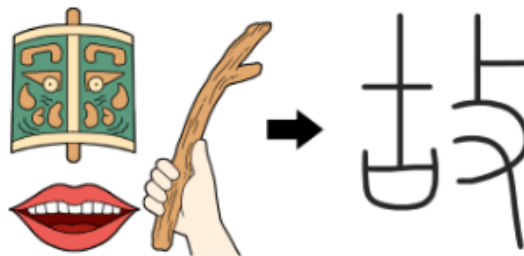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16

회의문자①



故

故자는 '옛날'이나 '옛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故자는 古(옛 고)자와 攴(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古자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의미에서 '옛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攴자가 더해진 故자는 본래 어떠한 일의 '원인'이나 '이유'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이라는 뜻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古자나 故자가 큰 구분 없이 쓰일 때가 많다. 하지만 古자는 주로 '오래되다'를 뜻하지만 故자는 '옛날'이나 '옛일'을 뜻할 때가 많다.

연고  
고(:)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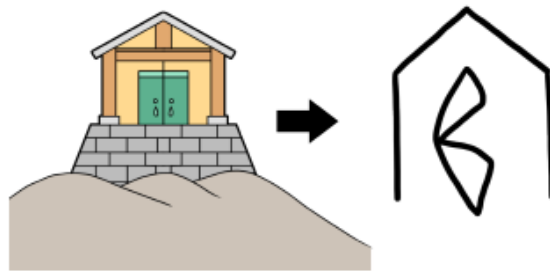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17

회의문자㉠



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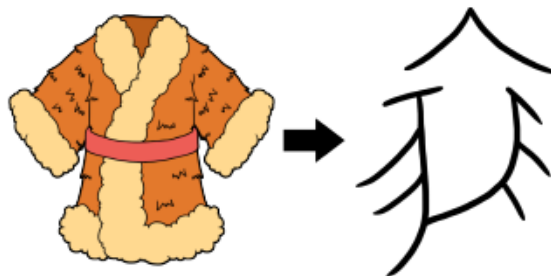
벼슬 관

官자는 '벼슬'이나 '관청'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官자는 宀(집 면)자와 阜(언덕 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阜자는 흙이 쌓여있는 '언덕'이나 '구릉'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언덕을 뜻하는 阜자에 宀자가 결합한 官자는 '높은 곳에 지어진 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전에는 官자가 나랏일을 하던 '관청'을 뜻했었다. 나랏일을 하는 관청을 높은 곳에 지어진 집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후에 官자가 '벼슬아치'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食(밥 식)자를 더한 館(객사 관)자가 '관청'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8

상형문자㉠



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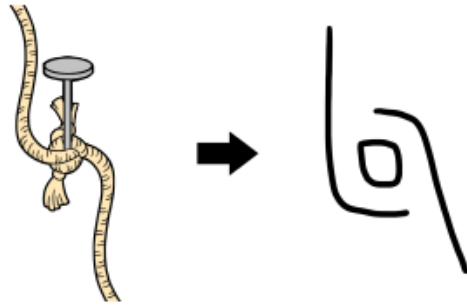
구할[索]  
구

求자는 '구하다'나 '탐하다', '빌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求자는 水(물 수)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으나 '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求자의 갑골문을 보면 衣(옷 의)자에 여러 개의 획이 求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털 가죽옷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求자의 본래 의미도 '털 가죽 옷'이었다. 먼 옛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털옷은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옷이었지만 쉽게 구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비쌌다. 求자에서 말하는 '구하다', '탐하다', '청하다'라는 것은 비싼 털옷을 구하거나 원한다는 뜻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9

회의문자①



句

글귀 구

句자는 '글귀'나 '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句자는 勹(쌀 포)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句자의 갑골문을 보면 勹(엮힐 구)자 사이에 口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말뚝에 끈을 묶어놓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句자는 끈으로 말뚝을 휘감았다 하여 '굽다'나 '휘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금문에서부터는 끈의 형태를 勹자로 표현하게 되었고 의미 역시 여러 글이 뒤섞여있는 것을 뜻하는 '글귀'나 '구절'을 뜻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20

회의문자①



究

연구할  
구

究자는 '연구하다'나 '탐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究자는 穴(구멍 혈)자와 九(아홉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九자는 구부린 팔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 究자는 동굴 속을 더듬는 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동굴 속을 더듬는 모습으로 그려져 '깊다'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후에 금문에서는 여기에 햇불을 든 모습이 그려졌는데, 어두운 동굴 속 깊이 들어간다는 표현이었다. 소전에서는 햇불은 사라지고 대신 팔뚝을 그린 九자가 동굴을 더듬는 모습을 표현하게 되었다. 究자는 이렇게 깊고 어두운 곳을 손으로 더듬으며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연구하다'나 '헤아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두 글자가 파생됐다. 하나는 여기에 水(물 수)자가 더해진 深(깊을 심)자이고 다른 하나는 手(손 수)자를 더한 探(찾을 탐)자이다. 금문에서 햇불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에서 木(나무 목)자만 남은 것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